



“번뇌 일깨우는 심지 범등 밝혀”

■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시방세계가 새 역사를 맞습니다. 하늘은 새 빛을 빚어 이 땅의 어둠을 씻어내고 산빛 물빛이 한결 같이 지혜광명을 이루어 사바의 번뇌를 일깨우는 심지(心地)의 범등을 밝힙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온 비원(悲願)의 숨결이 오늘 아침 장강으로 열려서 비옥한 산하를 이루니 집집마다 향상(向上)의 기풍은 하늘 높이 드날리고 만유(萬有)는 본분소식(本分消息)을 드러내어 얽매임에서 벗어납니다.

온 누리는 해일(慧日)이 충만하여 교화를 입지 않는 이가 없고 세계는 보리가 널리 퍼져 군생(群生)이 도업을 이루니 눈앞에 다가서는 모든 장애(障礙)는 무너지고 대지 위에 되풀이 되는 전도(顛倒)의 고통이 그칩니다.

만물은 이택(利澤)을 베푸는 대시문(大施門)을 열고 사람들은 근기에 따라 무생법인(無生法忍)의 기쁨을 얻으니 목인(木人)은 봉황을 타고 하늘 밖으로 날아가고 철우(鐵牛)는 걸림 없는 법륜을 굴러 모든 중생을 평등케 합니다.

탐하는 이는 장애의 풍운이 높아질 것이고 배픈 자는 오늘의 화택(火宅)을 벗어나는 길을 열 것이니 치우친 곳에서 만나지 못하고(偏處不逢) 현현한 가운데에서는 잃지 않을 것입니다.(玄玄不失)

“삼세가 일념이고 일념이 삼세”

■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모든 아픔은 희망의 등불이 켜지는 과정이요, 불행은 행복의 동반자다. 바위틈에서 살아가는 저 소나무 모진 시련 이겨내며 비바람에 꺾이지 않는 뿌리를 가꾸나니. 동업대중이여, 백길 절벽에서 한 발 더 나아가라. 그제야 알게 되리라,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一念普觀無量劫(일념보관무량겁)/無去無來亦無住(무거무래역무주) 如是知三世事(여시료지삼세사)/超諸方便成十力(초제방편성십력)

한 생각에 무량세월 널리 살펴보니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며, 또한 머무는 것도 없구나. 삼세가 일념이고 일념이 삼세이니 지혜로써 밝게 보아 연꽃행을 펼쳐보라.

“새해의 복된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신년사

한해의 매듭은 새로운 각성의 기회입니다. 삶과 죽음, 속박과 자유, 전쟁과 평화, 부처와 중생 등은 서로가 등을 대고 붙어 있는 한 몸의 두 얼굴인 것입니다. 부처가 되고 싶으면 중생을 품에 감싸 안으면 되고, 평화를 얻고자 하면 투쟁을 그치면 되며, 자유를 얻고 싶으면 자타를 향한 속박을 멈추면 되고, 희망이 그리우면 절망과 동행하면서 그늘을 지워가야만 합니다. 검박함으로 품위 있는 인류를 몸소 실천하는

부처를 닮은 국민들에게, 절망을 품에 안고 함께 견디는 진정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들에게, 속박의 고통과 동행하며 공부하는 원효의 후예다운 지식인들에게, 우리들의 권세와 영광에 열망하기 보다는, 고통 받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 소리 없이 기도하는 종교인들에게, 새해의 복된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희망과 열의로 재도약하는 한해 되기를...”

■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신년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해를 맞는 새해 벽두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고 힘찬 도약을 기약하는 일은 우리의 보편적인 정서일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 성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부처님 자비광명이 사랑에 두루 하여 국운이 융창하고 국민이 행복하며 각자 소원이 성취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분노·증오 끊고 자비 가꿔 웃음 가득한 세상 만들자”

■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신년사

기축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국내외의 동포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이어지고, 온 겨레가 한마음으로 화합과 상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새롭게 맞이하는 기축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온 세상에 기쁨을 선사하는 훌륭한 보시를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세상 사람들 모두 환희자약(歡喜奮躍)하고, 우주 법계에 가득 찬 유무정의 일체 존재들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힘 긍정하면 참된 주인이 됩니다”

■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신년사

마음은 모든 일의 근원이 되어(心爲法本) 주인으로 모든 일을 시키나니(心尊心使) 마음 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中心念善)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卽言卽行) <법구경>

쓰면, 참된 주인 자리가 계속되고 무지·나태로 방치하면, 내 안의 무한 보고도 제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긍정하고, 바로 지키는 일이 정진입니다. 정진은 이 세상을 새로움으로 채우는 우리 삶입니다. 기축년 한해, 정진으로 우리의 삶을 열고 그 공덕으로 복과 지혜가 넘치는 세상이 되길 합장 서원합니다.



“집착 벗어나 나누는 지혜 필요해”

■ 해초 스님

태고종 종정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일체중생 이고득락(離苦得樂)하시기를 심축(心祝)합니다. 요즘 경제사정으로 서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삶의 태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한결을 뒤로 물러서 마음을 쉬고, 강한 집착에서 벗어나 가진 것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허공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이 불신과 갈등으로 얼룩진 중생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인간상실의 시대에 인류가 추구하는 대명제는 인본과 평화, 생명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상존과 협하는 생문의 길이요, 분석과 이반은 멸문의 길입니다. 자비와 구원은 부처의 본회요, 오만과 독선은 중생 지방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너그러우면 복이 두터워지고 생각이 좁으면 하는 일이 움츠러드는 까닭에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열고 분수를 지키며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하여,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본성을 잃지 않는다면 멸지 않는 장래에 반드시 제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常有欲以觀其微(상유욕이관기묘)/常無欲以觀其妙(상무욕이관기묘) 己丑新年心淸淨(기축신년심淸淨)/自他共成普賢道(자타공성보현도) 욕심이 지나치면 부분 밖에 볼 수 없고/욕심을 여의면 전체가 보인다네. 기축년 새해에는 청정심을 잃지 말고/너와 나 모두 같이 큰 소원 이루어세.

“부처님 말씀 실천에 심혈 기울여야”

■ 도훈 정사

진각종 총인



귀명사보하옵고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 종단 스승님 여러분과 불교계 각 종단 고승 대덕스님 제위의 법체가 만안(萬安)하시고, 각계각층 불자 제현님의 생활 속에 항상 불은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받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모든 불자님이 다 함께 부처님 말씀과 진각성존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가지력과 우리들이 실천한 자심선행(慈心善行)의 공덕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첫째, 정국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갈등과 대립을 없애고 화합과 상생의 자세로 국민총화를 이뤄야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직장을 얻어야 할 사람들의 구직난까지 극심해지고 있으니 이러한 난제도 조속하게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남과 북이 이해증진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가 사랑하고 협조하며 평화통일의 소원도 기필코 성취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난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곧 생활철학과 함께 한 부처님의 교법을 실천하는데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부처님 정법을 진실하게 수행 실천해 국운을 융성하게 하도록 정진합니다. 그리해 이 공덕이 전 세계로 미쳐져서 평화와 안정으로 불국정토를 이룩하는데 다같이 한 마음이 되시기를 서원합니다.

365일 24시간 열린 신행공간 조계사



새해에는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여 바라는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계사 주지 세민 합장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83~4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용 주 사

주 지 정 호
특 보 성 로
부주지 성 직

총무국장 성 무 기획국장 남 전 교무국장 연 담
재무국장 응 진 사회국장 덕 조 포교국장 덕 본
박물관장 보 승

■ 부설 : 효행박물관 경기불교대학 효행교육원 용주사 템플스테이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www.yongjoosa.or.kr